

그룹홈과 일반가정 아동의 어머니 양육행동과 형제자매관계 및 사회적 적응*

Maternal Child Rearing Behavior, Sibling Relationship and Children's Social Adjustment in Group Home and Original Home

조성연
호서대학교 아동학전공

Cho, Song Yon
Major in Child Studies, Hoseo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maternal child rearing behavior, sibling relationship, and children's social adjustment in group home and original hom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159 mothers and their children in Seoul and Gyeonggi-do. Mothers responded to 'Korean Maternal Behavior Inventory', 'Sibling Relationship Questionnaire' and 'Social Maturity Scale'.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ANCOVA, Pearson's partial correlation, factor analysis, and Cronbach's α for internal consistency by SPSS PC program(10.0 version).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maternal rearing behavior between group home and original home. Original home mothers showed higher scores in reasoning guidance, affect, authoritarian control, achievement, overprotection, active involvement, and limit setting. Second,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sibling relationship among two different homes. Sibling relationship in original home was more warm, intimate, and competitive. Third,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social adjustment in those homes. Finally, there were different correlations among those homes. In original home, there were significant correlations between maternal rearing behavior and children's social adjustment, but there were no significant correlations between those variables.

Key word : Group Home, Original Home, Maternal Child Rearing Behavior, Sibling Relationship, Social Adjustment

I.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사회구조의 급격한 변화와 경제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해마다 요보호 아동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의 이혼이나 별거 등의 급증으로 자녀들을 돌보고 보호하지 않는 부모들도 동시에 늘어나면서 전국에 아동양육시설이나 아동복지시설이 늘어나고 있다. 보건복지부(2003) 자료에 의하면 2002년 12월 현재 우리나라의 아동양육시설은 총 239개소로 17,437명의 아동들이 보호를 받고 있다. 이는 2000년

235개소의 16,293명과 비교하여 2년만에 그 수가 1,000명 이상 늘어난 상황이다. 이와 같이 요보호 아동이 증가하면서 이들의 전인적이고 건전한 성장, 발달을 위하여 시설의 물리적 환경이나 돌보는 사람의 질적인 수준, 제공되는 프로그램 등 시설보호에 대한 다양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 되고 있다.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면서 아동들에게 보다 나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주기 위하여 최근 지역사회에 기반을 두고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해주는 소규모 주거시설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이 새로운 대안으로 제기되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외국에서는 이미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 초반까지 탈시설화, 최소 제한적 환경, 정상화 이념의 영향으로 대규모 시설들이 지역사회중심의 소규모 주거시설

* Corresponding author : Cho, Song Yon
Tel : (041) 560-8133 Fax : (041) 560-8101
E-mail : sycho@office.hoseo.ac.kr

또는 치료시설로 전환되었다(Lerman, 1984). 그러나 우리나라는 1990년대 들어와서야 비로소 대규모 아동복지 시설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책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면서 가장 현실성 있는 소규모 보호양식 중 하나로 그룹홈(group home), 즉 공동생활가정사업을 실시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 김성경(2003)은 우리나라의 문화적인 특수성과 아동복지의 관점에서 그룹홈은 가정위탁 보호와 시설보호 사이의 중간형태로서 현 시점에서 요보호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대안이라고 지적하기도 하였다.

그룹홈이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아동복지법 제 16조 3항)이다. 이는 부모의 사망, 이혼 및 기타 사유로 가정으로부터 이탈한 아동이나, 가정 폭력·학대 등을 이유로 사회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하는 아동, 가출 등으로 인해 일시적인 보호가 요구되는 아동들을 5~10인의 소규모로 가정과 같은 분위기에서 양육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양식이다(이태수, 2000).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가 1997년 소년소녀가장을 위한 그룹홈 5개를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고, 1998년부터는 법인 육아 시설아동들을 위하여 5개의 그룹홈을 시범사업으로 운영한 바 있다(노혜련, 1998). 이후 2001년 4월 현재 시범 사업으로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 10개의 그룹홈을 포함하여 약 118개의 그룹홈에 1,200명 정도의 아동이 보호를 받고 있다(최수영, 2002). 그룹홈은 기존의 시설보호에서 탈피하여 가정과 같은 분위기 속에서 아동이 건전하게 양육되도록 하고, 지역사회와의 이웃과의 교류 등을 통하여 사회적응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이미 2000년 아동복지법에 반영되었으나 아동복지시설만이 실시할 수 있는 사업유형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2003년 12월 22일 아동복지법에 대한 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서 그룹홈, 즉 공동생활가정사업이 아동복지시설의 한 종류로 규정되어 이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보건복지부, 2003).

특히 그룹홈은 요보호아동에게 단순히 생활의 공간만을 제공해주려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의 다양한 인간관계가 요보호아동들에게 정서적 지지체계로 작용하면서 이들이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고자 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그러므로 그룹홈에는 일반가정과 같은 형식의 부모자녀관계와 형제자매관계가 있어 이들 간에 역동적인 상호작용이 존재하게 된다. 특히 그룹홈은 5~10인의 형제자매가 다양한 연령층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다양한 역동성의 형제애를 느낄 수 있도록 해준다(www.choonie.or.kr). 그리하여 그룹홈의 공

동생활 속에서 개별 아동들은 일반 가정과 같은 사회적 적용 및 기본적인 성격형성 등의 발달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자극을 받는다. 또한 그룹홈 내에서는 이를 맡아 운영하는 보호자가 일반가정의 어머니나 아버지와 똑같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다양한 부모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므로 그룹홈과 일반가정 아동의 차이점을 살펴봄에 있어서 아동들을 돌봐주는 부모의 양육방식에 차이가 있는지 조사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아동들과 가장 많이 상호작용하는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어머니의 양육방식이 두 집단 간에 서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그룹홈 어머니 역할의 중요성과 그 영향력을 설명할 수 있어 이후 그룹홈 어머니의 선발이나 역할에 중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그룹홈이 기존의 일시 보호소나 보육원과 차별화되어 일반가정과 같은 인적, 물적인 환경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그룹홈 아동과 일반가정 아동의 사회적 적용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다. 특히 그룹홈에서의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적용이 용이하면 긍정적인 사회적 적용을 이루며, 그룹홈의 청소년이 일반가정 청소년에 비해 오히려 더 낮은 정서문제를 나타냈다는 선행연구들(김성경, 2003; 이미혜, 2002; 이용교, 2000)의 결과를 통해 적절한 환경만 제공된다면 그룹홈아동과 청소년들도 일반가정의 아동이나 청소년들과 같은 사회적 적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해준다. 그러나 시설아동들은 사회적 지지를 적게 받고, 사회적 적용을 잘 못하여 타인으로부터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으며, 자신이 속한 집단에서 고립될 수도 있고, 학급활동에 소극적이며, 학교적응도 잘 하지 못한다는 상반된 선행연구결과들(권세은, 이순형, 2002; 성미영, 이강이, 이순형, 2001; 유안진, 한유진, 최나야, 2001; 이순형, 이혜승, 2002)도 있으므로 실증적으로 그룹홈과 일반가정 아동의 사회적 적용에서 차이가 있는지 규명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사회적 적용과 관련하여 가족 내에서의 형제자매관계는 서로서로 강한 감정을 일으키고 아동들로 하여금 그러한 감정을 다루는 것을 배울 기회를 제공해주며, 대인관계 기술을 연습할 수 있는 무한한 기회를 제공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해준다. 그룹홈도 인위적이고 비혈연적이기는 하나 형제자매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이 일반가정 아동의 형제자매관계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다.

비록 그룹홈이 일반가정과 유사한 부모-자녀관계와 형제자매관계가 이루어지면서 일반가정과 유사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으나 시설의 일종이고 비혈연적인 관계이므로 사회적 적용수준이 낮을 수 있고, 형제자매

관계도 피상적인 수준에 머물 수 있다. 또한 이런 외현적인 사실들로 인해 그룹홈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그룹홈이 일반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해주고자 시도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의 일환인 바, 이 안에서 생활하는 아동들이 일반가정의 아동들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미래 그룹홈의 확대 실시를 위해 매우 필요하고 의의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그룹홈에 대한 연구가 많지는 않지만 주로 그룹홈의 유용성이나 운영원리, 활성화 과제를 논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짐으로써 그룹홈에서 생활하는 아동들의 다양한 인간관계와 더 나아가 이를 일반가정의 아동과 비교한 실증적인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이들 간의 차이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늘어나는 요보호 아동에 대한 복지지원 차원에서 매우 필요하고 의의있는 일이라 사료된다. 요보호 아동이 늘어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들을 위한 적절한 대안으로 그룹홈이 지적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연구는 시기적으로도 매우 필요하다.

이와 같은 필요성에 따라 본 연구는 보호시설의 요보호 아동수가 2000년 7,760명, 2001년 12,086명, 2002년 17,437명(보건복지부, 2003)으로 해마다 5,000여 명씩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한 그룹홈 아동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이의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해주고자 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토대로 그룹홈과 일반가정 아동의 사회성 발달과 형제자매관계 및 어머니 양육행동의 비교를 통해 그룹홈과 일반가정의 아동들에 대한 차이나 그 관련성을 살펴봄으로써 그룹홈 등의 보호시설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이나 다양한 사회복지 서비스 정책을 입안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그룹홈과 일반가정 아동의 어머니 양육행동에 차이가 있는가?

둘째, 그룹홈과 일반가정 아동의 사회적 적응에는 차이가 있는가?

셋째, 그룹홈과 일반가정 아동의 형제자매관계에는 차이가 있는가?

넷째, 그룹홈과 일반가정 아동의 어머니 양육행동과 사회적 적응 및 형제자매관계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II. 이론적 배경

1. 그룹홈

그룹홈이란 대리보호서비스의 일환으로 가정위탁서비스와 시설복지서비스의 중간형태로서 큰 단위의 위탁가정이나 작은 시설로 볼 수도 있으나 가정위탁서비스보다는 시설복지서비스에 가까운 개념으로 보는 경향이 더 지배적이다(노혜련, 1998). 소규모 시설복지서비스, 곧 요보호아동 그룹홈은 5~10명, 많게는 15명의 아동을 일반지역사회 내의 가정집에서 가정과 유사한 형태로 보호·양육하는 것을 의미한다. Kadushin은 그룹홈을 대규모 위탁가정 또는 소규모시설의 형태로서 지역사회 내의 서로 관련이 없는 아동들로 구성된 소집단의 가정형태 주거시설이라고 정의하였다(김성태, 2002). 또한 미국 아동복지연맹은 그룹홈을 시설보육이 금지된 사춘기 또는 장애를 가진 청소년들의 특수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가정형태의 환경에서 적은 수의 그룹을 위한 보호로 정의하여 그룹홈의 구성은 5~12명의 아동으로 하되, 6~8명이 이상적이라고 설명하였다(강기정, 정은미, 2003). 이러한 정의들에서 알 수 있듯이 그룹홈은 비혈연관계에 있는 청소년기 이하의 아동들을 최소 5명에서 최대 12명의 그룹으로 형성하여 지역사회 내에서 단독주택이나 아파트 등의 일반 가정과 같은 규모의 가정집 형태에서 이들을 돌봐주는 성인이 함께 거주하면서 보호와 생활이 이루어지는 공동생활가정이다.

우리나라의 그룹홈은 요보호 아동들을 위한 수용보호가 종교단체나 지역사회복지사들에 의해 가정형태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의 그룹홈은 보건복지부가 1985년 선가정 후시설보호를 원칙으로 하는 소년소녀가장가정을 통한 거택보호를 시작하고 생활보호대상 아동 위주로 보호, 운영되던 기존의 육아시설 입소기준을 확대하면서 그 시범사업으로 1997년 5개의 정부지원 그룹홈(서울 2개소, 경기 2개소, 강원 1개소)을 시작한데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요보호 아동과 비행청소년, 장애아들을 위한 그룹홈들은 대부분 국가지원보다는 종교단체나 독지가에 의해 소공동체로 운영되고 있으며, 2001년 4월 현재 118개 약 1,200명 정도의 아동들이 보호, 양육되고 있다(최수영, 2002).

그룹홈은 소집단이기 때문에 아동과 성인간의 상호작용이 빈번하고, 더 밀접한 언어적, 신체적 접촉을 할 수 있으며, 아동 개개인에 대한 개별처우가 가능하고, 지역사회 안에서 일반가정과 같은 분위기로 아동에게 다양한 생활경험을 제공해줄 수 있다. 또한 비혈연적이기는

하지만 부모와 형제자매가 있기 때문에 아동의 문제행동을 수정하고 통제하는데도 시설보호나 위탁가정보다 더 유리한 장점을 지니고 있다. 이런 점은 우리나라에서 실시된 그룹홈 아동과 법인육아시설의 아동의 비교연구를 통해서도 뒷받침되고 있다. 즉 지역사회에 통합되어 있고 소규모인 그룹홈의 아동들이 지역사회로부터 분리되어 있고 대체로 대규모인 법인육아시설의 아동보다 시설의 생활과 심리적 환경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태수, 함철호, 이용교, 1997).

2. 어머니 양육행동과 형제자매관계 및 아동의 사회적 적응

양육행동이란 아동을 양육함에 있어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부모나 양육자의 행동으로써 다양한 유형으로 분류되고 있고, Shaefer가 제시한 애정-적의와 자율-통제의 양축으로 설명한 유형분류가 많이 활용되어 왔다. 우리나라에서의 양육행동에 대한 연구들 중 이숙(1991)은 어머니가 아동을 대하고, 가르치고, 돌보는데 있어 나타내는 행동으로 양육행동을 정의하면서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어머니 양육행동척도를 제작한 바 있다.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특히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형제자매관계나 아동의 사회적 기술이나 태도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 속에서 아동들은 다양한 인간관계를 통해 사회적 적응을 해나간다. 그러므로 개인이 조화로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게 되면 대인관계가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사회의 규범이나 관습 등에 보다 잘 적응하게 된다. Belsky(1984)는 어머니의 합리적 지도나 일관성 있는 훈육, 애정적 태도 등은 학령기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고 지적하였으며, 부모의 양육행동과 관련한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에 대한 많은 연구결과들(공인숙, 1989; 김지신, 1996; 최정미; Cohn, 1990; Dekovic & Janssens, 1992)도 부모의 양육행동이 애정, 자율, 성취 지향적이고 합리적이고 일관되며 신뢰로우수록 아동의 사회적 능력이 더 높게 나타남을 보고하였다. 사회성숙도를 이용하여 아동의 사회적 적응을 살펴본 바에 의하면 부모의 기대가 높을수록 초등학생의 사회성숙도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황주영, 2000).

그룹홈 아동이나 청소년의 사회적 적응과 관련하여 연구한 결과들이 많지는 않지만 소수 수행된 연구들(김성경, 2003; 이미혜, 2002; 이용교, 2000)은 그룹홈 아동들의 경우에 심리사회적 적응에 있어서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정서문제와 행동문제가 많이 발생하였고, 자아존중감, 친구지지, 교사지지, 사회활동만족도가 높을수록

그룹홈에의 적응이 더 용이하였다는 결과들을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은 그룹홈에서의 만족도가 높고, 적응을 잘하면 이들은 보다 긍정적인 사회성 발달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시설의 규모가 작을수록, 즉 가족적인 유대감을 가질수록 아동과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력이 더 높게 나타났다는 이삼미(1999)의 연구결과, 시설의 심리적 환경이 높은 시설일수록 시설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이 더 용이하였다는 유안진, 민하영, 권기남(2001)의 연구결과, 소규모 시설의 아동이 보다 성취적, 개방적, 친애적, 자율적, 상호친밀하고 응집력있는 성향을 나타냈다는 이태수 등(1997)의 연구결과를 통해서도 그룹홈 아동들의 사회적 적응력이 비교적 높게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해준다. 이는 일반가정의 아동과 비교해볼 때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시설아동을 대상으로 연구한 권세은, 이순형(2002)의 연구결과에서는 시설보호 아동이 일반아동에 비해 사회적 기술 수준이 더 낮게 나타났으며, 초기 학교적응에 관한 성미영, 이순형, 이강이(2001)의 연구결과에서도 시설아동이 일반아동에 비해 뒤떨어진다는 시설아동에 대한 부정적인 결과들도 다수 보고되고 있다.

형제자매관계도 아동의 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이는 연령차로 인해 보완성과 상호성을 동시에 내포하면서 부모자녀관계에서 얻을 수 없는 경험을 제공하여 외부 환경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Daniels와 Plomin은 형제자매관계에 내재되어 있는 기본적인 속성으로 보호심, 친밀감, 경쟁심, 적대감을 지적하기도 하였다(한국인간발달학회, 1997:396). 결국 형제자매관계는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상호 작용하는 상호적·호혜적 관련을 가지면서 때로 동료로서, 교사로서 대인관계의 기초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그리하여 형제자매관계를 통해 아동들은 끊임없는 긍정적, 부정적인 자극을 공유하면서 사회적 적응을 위한 기초를 다지게 된다(Jaffe, 2000:274-275). 아동기의 형제자매관계를 통해 형성된 사회적 적응은 또래관계와 같은 가족 외 관계의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스트레스가 많은 가족에서 형제자매관계는 서로 지지와 협력을 제공해주기도 한다(Stocker & Dunn, 1990). 또한 형제자매관계는 상호 지지적인 역할을 통해 사회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부모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냄으로써 친사회적 경험이나 공격적 행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아동기 중기에 나타나는 아동의 적응은 부분적으로 형제자매관계의 질과 관계가 있다는 연구결과(Jaffe, 2000:276)도 보고되고 있다. 형제자매의 유무에 따른 사회적 능력을 살

펴본 이현정과 조성연(2002)의 연구결과, 외동아에 비해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에 사회적 능력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형제자매관계와 어머니 양육행동에 관해 연구한 변지원(1999)의 결과에서도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더 애정적일 때 형제자매관계는 아동들에게 더 온정적이고 친밀하게 지각되었다(이현정, 조성연, 2002).

IV.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그림홈 아동 38명과 그 어머니 12명, 서울과 경기지역의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일반가정 아동 73명과 그 어머니 36명의 총 15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림홈은 서울시에 있는 S 그림홈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 그림홈은 각자의 독립된 집에서 독신인 어머니가 여러 연령층의 남녀 어린이 2~6명을 돌보면서 생활하고 있었다.

연구대상 아동의 성별, 학년별 아동 수 및 어머니 수와 이들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의 특성은 다음의 <표 1>, <표 2>와 같다. 아동수와 그 어머니수가 다른 이유는 그림홈인 경우 한 어머니가 2~6명의 자녀를 돌보고 있고, 일반가정인 경우에는 2~3명의 자녀를 두고 있어서 형제자매수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표 1> 연구대상의 성별, 학년별 아동수 및 어머니수 (N=111)

구분	그림홈(n=38)	일반가정(n=73)	전체(N=111)	
	빈도(%)	빈도(%)	빈도(%)	
성	남자	25(65.79)	37(50.68)	62(55.86)
	여자	13(34.21)	36(49.32)	49(44.14)
	계	38(100)	73(100)	111(100)
학년	1	5(13.16)	9(12.33)	14(12.61)
	2	2(5.26)	13(17.80)	15(13.51)
	3	8(21.05)	7(9.59)	15(13.51)
	4	6(15.79)	16(21.92)	22(19.82)
	5	4(10.53)	12(16.44)	16(14.42)
	6	13(34.21)	16(21.92)	29(26.13)
	계	38(100)	73(100.0)	111(100.0)
어머니	12	36	48	

<표 2> 연구대상 어머니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의 특성 (N=48)

구분	그림홈(n=12)	일반가정(n=36)	전체(N=48)	
	빈도(%)	빈도(%)	빈도(%)	
직업	사무직·행정직	0(0.0)	1(2.78)	1(2.08)
	전문직	0(0.0)	3(8.33)	3(6.25)
	서비스직	0(0.0)	5(13.89)	5(10.42)
	전업주부	12(100)	27(75.00)	39(81.25)
	전체	12(100)	36(100)	48(100)
교육수준	고졸	10(83.34)	17(47.22)	27(56.25)
	2년제 대졸	1(8.33)	8(22.22)	9(18.75)
	4년제 대졸	1(8.33)	11(30.56)	12(25.00)
	전체	12(100)	36(100)	48(100)
연령	39세 이하	3(25.00)	22(61.11)	25(52.08)
	40~49세	3(25.00)	14(38.89)	17(35.42)
	50세 이상	6(50.00)	0(0.0)	6(12.50)
	전체	12(100)	36(100)	48(100)
월평균수입	100만원 이하	0(0.0)	4(11.11)	4(8.33)
	101~150만원	5(41.67)	12(33.33)	17(35.42)
	151~200만원	6(50.00)	6(16.67)	12(25.00)
	201~250만원	1(8.33)	7(19.45)	8(16.67)
	251~300만원	0(0.0)	3(8.33)	3(6.25)
	301만원 이상	0(0.0)	4(11.11)	4(8.33)
	전체	12(100)	36(100)	48(100)

2. 연구도구

1) 어머니 양육행동척도

어머니 양육행동척도는 이 숙(1991)이 51문항의 7개 하위영역으로 제작한 것을 본 연구에서 요인분석해본 결과 요인부하량이 낮은 10문항을 제외시킴으로써 총 41문항으로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늘 그렇다' 5점, '그런 편이다' 4점, '반반이다' 3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 2점, '거의 그렇지 않다' 1점으로 채점되었으며, 각 하위영역별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하위영역에 관련된 내용들이 더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 척도의 각 하위영역에 대한 문항수와 Cronbach's α 는 합리적지도(8문항) .82, 애정(9문항) .89, 권위적 통제(7문항) .74, 과보호(7문항) .70, 성취(4문항) .70, 적극적 참여(6문항) .81이었다.

2) 사회성숙도 검사

사회적 적응 정도를 살펴보기 위해 Doll(1968)이 제작한 바인랜드 사회성숙도 척도(Vineland Social Maturity Scale)를 기초로 한국행동과학연구소(1985)에서 0세부터 12세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194개 문항으로 제작한 것

중 초등학생에 해당하는 24문항만을 선정하여 사용하였다. 본 검사는 3점 척도로 구성되어있으며 '그렇다' 3점, '보통이다' 2점, '그렇지 않다' 1점 순으로 평가하여 24~72점의 점수범위를 이루고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적응을 잘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검사의 Cronbach's α 는 .91이었다.

3) 형제자매관계 척도(Sibling Relationship Questionnaire: SPQ)

형제자매관계 측정도구는 Furman과 Buhrmester(1985)가 제작해 송현정(1998)이 3개 하위요인의 22문항으로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요인분석한 결과 요인부하량이 낮은 6문항을 제외시킴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총 16문항으로 구성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5점 Likert 척도이며, 온정/친밀감(8문항), 편애지각(3문항), 경쟁(5문항)의 3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온정적이고 친밀하고, 부모가 자신에게 더 사랑을 보인다고 지각하며, 형제자매간 경쟁도 더 많은 것을 나타낸다. 하위요인별 Cronbach's α 는 온정/친밀감 .83, 편애지각 .86, 경쟁 .75이었다.

3. 연구 절차 및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는 2003년 8월 9일부터 2003년 10월 4일까지 선정된 일반가정과 그룹홈의 어머니들을 개별 방문하여 어머니 양육행동 질문지와 사회성숙도 척도와 형제자매관계 질문지를 전달하여 어머니들이 직접 응답하게 한 후 회수하는 방식으로 자료가 수집되었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연구대상 어머니의 교육수준, 연령, 월평균소득, 직업에 따라 유의 있는 차이가 산출되었기 때문에 이를 통계적으로 통제하여 분석함으로써 연구문제 1~3에 대해서는 공변량분석(ANCOVA)을, 연구문제 4는 부분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어머니 양육행동척도와 형제자매관계척도는 문항의 타당성을 위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검사도구의 신뢰도를 위해서는 Cronbach's α 를 산출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연구문제에 따라 결과를 분석하기에 앞서 표집된 집단들 간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연구대상 어머니의

직업과 교육수준, 연령, 월평균 소득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이들 4개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산출되었다. 이런 차이가 본 연구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을 통계적으로 통제하였으며 이후 모든 차이검증은 공변량분석(ANCOVA)을 실시하였다.

<표 3> 연구대상 어머니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차이검증 결과

구분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직업	집단-간	153.637	1	153.637	6.609***
	집단-내	90.219	109	.828	
	전체	243.856	110		
교육수준	집단-간	5.164	1	5.164	7.366**
	집단-내	76.421	109	.701	
	전체	81.586	110		
연령	집단-간	1682.789	1	1682.789	89.100***
	집단-내	2058.635	109	18.887	
	전체	3741.423	110		
월평균수입	집단-간	7.464	1	7.464	4.635*
	집단-내	175.527	109	1.610	
	전체	182.991	110		

* p<.05 ** p<.01 *** p<.001

1. 그룹홈과 일반가정 아동의 어머니 양육행동

그룹홈과 일반가정 아동의 어머니 양육행동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는 다음의 <표 4>와 같다.

<표 4> 그룹홈과 일반가정 아동의 어머니 양육행동에서의 차이검증 결과

하위요인	그룹홈		일반가정		F
	M	SD	M	SD	
합리적 지도	32.03	2.06	32.81	3.76	3.125*
애정	31.58	2.86	35.99	5.25	7.398***
권위주의적 통제	17.42	2.37	22.27	3.22	22.939***
과보호	17.76	1.99	18.03	3.68	6.297***
성취	13.16	2.95	14.67	2.17	3.459**
적극적 참여	20.66	3.01	21.74	3.90	8.718***

* p<.05 ** p<.01 *** p<.001

<표 4>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어머니 양육행동은 모든 하위요인에서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즉 일반가정 어머니들이 6개 하위요인에서 그룹홈 어머니들보다 더 유의하게 높은 양육행동점수를 나타냈다.

이런 결과는 일반가정 어머니들이 그롭홈 어머니들에 비해 자녀들을 더 합리적으로 지도하고, 적극적 참여를 권장하며, 더 애정적이고, 성취지향적이며, 동시에 과보호와 권위주의적 통제도 더 많이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2. 그롭홈과 일반가정 아동의 형제자매관계

그롭홈과 일반가정 아동의 형제자매관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는 다음의 <표 5>와 같다.

<표 5> 그롭홈과 일반가정 아동의 형제자매관계에서의 차이검증 결과

하위요인	그롭홈		일반가정		F
	M	SD	M	SD	
은정/친밀감	25.42	5.09	26.00	5.55	3.298**
편애지각	9.34	1.73	8.40	2.09	1.543
경쟁	15.18	3.30	17.60	3.23	3.333***

** p<.01 *** p<.001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그롭홈과 일반가정 아동의 형제자매관계에서는 은정/친밀감과 경쟁의 두개 하위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일반가정의 아동이 그롭홈 아동에 비해 이 두 하위요인에서 더 높은 평균 점수를 산출하였다. 그러므로 일반가정 아동들이 그롭홈 아동들에 비해 더 온정적이고 친밀하며, 동시에 형제자매관계에서도 경쟁을 더 많이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하위요인 중 편애지각에 있어서는 두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산출되지 않았다. 즉 두 집단 모두 형제자매관계에서는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구하는 면에 있어 차이가 없음을 나타낸다.

3. 그롭홈과 일반가정 아동의 사회적 적응

그롭홈과 일반가정 아동의 사회성숙도 척도를 통한 사회적 적응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는 다음의 <표 6>과 같다.

<표 6> 그롭홈과 일반가정 아동의 사회적 적응에서의 차이검증 결과

	그롭홈		일반가정		F
	M	SD	M	SD	
사회적 적응	56.50	11.57	59.16	7.52	1.232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롭홈과 일반가정 아동의 사회적 적응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산출되지 않았다. 평균에서는 일반가정의 아동이 그롭홈 아동에 비해 더 높은 점수를 산출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그러므로 그롭홈과 일반가정 아동의 사회적 적응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다.

4. 어머니 양육행동, 형제자매관계, 사회적 적응간의 상호상관

어머니 양육행동과 형제자매관계 및 사회적 적응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4개 사회인구학적 변인들, 즉 어머니의 직업과 교육수준, 연령, 월평균 소득을 통제하여 일반가정과 그롭홈의 각각에 대해 부분상관계수를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의 <표 7>, <표 8>과 같다.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롭홈의 경우에는 사회성숙도와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형제자매관계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형제자매관계의 은정/친밀감과 어머니의 양육행동 중 애정, 권위주의적 태도, 과보호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고, 편애지각은 어머니의 합리적 지도와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형제자매관계에서의 경쟁은 어머니의 과보호, 성취와 부적상관관계가, 적극적인 참여와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그롭홈 아동의 경우에 어머니가 애정적이고 권위주의적 통제를 하고, 과보호를 더 많이 할수록 형제자매관계는 더 온정적이고 친밀해지는 경향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어머니가 합리적으로 지도할수록 아동은 어머니가 자신을 더 좋아한다고 지각하는 경향이 있다고도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어머니가 과보호하고 성취를 강조할수록 그롭홈 아동들은 형제자매들 간에 경쟁을 덜 하였고, 어머니가 보다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강조할수록 형제자매들 간에 경쟁은 더 많이 하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일반가정에서는 그롭홈과 다른 결과가 산출되었다. <표 8>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은정/친밀감의 형제자매관계는 어머니의 애정과 적극적인 참여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편애지각은 합리적인 지도와 부적 상관관계가, 경쟁은 애정과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성숙도에 의한 사회적 적응은 어머니의 양육행동 중 권위주의적 통제와 과보호와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고, 사회성숙도와는 형제자매관계 중 경쟁과만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산출되었다. 이러한

<표 7> 그룹홈 아동의 어머니양육행동, 형제자매관계, 사회적 적응의 부분상관계수

구분		어머니 양육행동					형제 관계			
		합리적 지도	애정	권위주의적 통제	과보호	성취	적극적인 참여	온정/친밀감	편애지각	경쟁
양육 행동	애정	.33*								
	권위주의적 통제	.39*	.53***							
	과보호	-.07	.43*	.49**						
	성취	.13	.44**	.27	.68***					
	적극적인 참여	.10	-.05	.00	-.45**	-.65***				
형제 관계	온정/친밀감	-.27	.36*	.30*	.37*	.06	.08			
	편애지각	.34*	.12	-.13	.03	-.24	.13	.23		
	경쟁	.23	.10	-.04	-.44**	-.51**	.53***	.08	.01	
사회적 적응		.20	-.12	.01	-.13	.04	-.02	-.22	-.26	.05

* p<.05 ** p<.01 *** p<.001

<표 8> 일반가정 아동의 어머니양육행동, 형제자매관계, 사회적 적응의 부분상관계수

구분		어머니 양육행동					형제 관계			
		합리적 지도	애정	권위주의적 통제	과보호	성취	적극적인 참여	온정/친밀감	편애지각	경쟁
양육 행동	애정	.65***								
	권위주의적 통제	.00	-.11							
	과보호	.11	.02	.53***						
	성취	.34**	.03	.13	.01					
	적극적인 참여	.48***	.77***	-.22	.05	.01				
형제 관계	온정 / 친밀감	.15	.44***	.07	-.00	-.19	.39***			
	편애지각	-.32**	-.19	-.09	-.00	-.15	-.15	.16		
	경쟁	-.19	-.42***	-.12	-.24	-.00	-.31	-.34**	-.01	
사회적 적응		-.05	-.13	-.37**	-.37**	.05	-.09	-.11	.05	.26*

* p<.05 ** p<.01 *** p<.001

결과를 통해 볼 때 일반가정의 아동들은 어머니가 더 애정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강조할수록 형제자매들 간에 온정적이고 친밀하였으며, 경쟁을 덜하였고, 어머니가 합리적으로 지도할수록 나보다 형제를 더 편애한다고 지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또한 아동의 사회적 적응은 형제자매들 간에 경쟁을 많이 할수록 더 높게 나타난다고도 볼 수 있다.

V. 요약 및 논의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그리 많이 연구되지 않은 그룹홈과 일반가정 아동에 대한 어머니 양육행동과 그들의 형제자매관계 및 사회적 적응에서의 차이 및 관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산출된 결과를 중심으로 요약하여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양육방식은 일반가정의 어머니들이 그룹홈 어머니들에 비해 모든 양육방식에서 더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즉 일반가정 어머니들이 자녀에 대해 애정적이고, 합리적으로 지도하며, 성취 지향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과 동시에 권위적인 통제와 과보호도 더 많이 하였다. 이러한 결과가 산출된 것에 대해서는 일반가정의 어머니에 비해 그룹홈 가정의 어머니들의 연령이 더 많고, 더 많은 수의 자녀들을 돌봐야 하며, 이들의 교육수준도 더 낮은 것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해볼 수 있다. 즉 일반가정 어머니들은 2년제 대졸 이상의 더 높은 교육수준과 주로 3, 40대의 연령층인데 반해 그룹홈 어머니들은 대부분이 고졸의 교육수준과 50대 이상의 연령을 지니고 있고, 더 많은 수의 자녀들을

돌봐야 하기 때문에 자녀들을 더 권위적으로 통제하고, 생활에 더 수동적으로 임하게 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런 결과는 Maccoby(1980)가 중상류계층의 부모들이 자녀에 대해 보다 애정적이고 독립심과 호기심을 강조하였다는 지적과 일맥상통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송명자, 1997). 다시 말하여 교육수준은 사회경제적 계층을 설명하는 한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일반가정 어머니들이 그로홈 어머니들보다 더 애정적이고 성취지향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통제된 상황에서의 추후연구를 통해 재검증해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 일반가정 아동의 형제자매관계가 그로홈 아동에 비해 더 온정적이고 친밀하면서 동시에 경쟁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그로홈의 경우에 다양한 연령층의 다수의 형제자매가 한 집에서 거주하기 때문에 연령이 많은 형제자매는 자신보다 연령이 어린 형제자매들에게 부모역할을 대신 해줌으로써 경쟁보다는 상호협조가 더 많이 이루어기 때문에 경쟁적인 측면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형제자매간 연령차가 작을수록 경쟁이 더 많았다는 Dunn과 Kendrick(송명자, 1997)의 연구결과와도 일치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일반가정은 형제자매수가 2~3명으로 연령차가 그리 많지 않지만 그로홈의 경우에는 영아에서부터 청소년기의 형제자매가 한 가족을 형성하고 있어 연령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 형제간 경쟁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또한 그로홈과 일반가정의 편애지각에서는 그로홈의 아동들이 일반가정의 아동들에 비해 더 높은 평균점수를 산출하여 그로홈 아동들이 일반가정 아동들보다 어머니가 자신에게 다른 형제자매보다 더 많은 사랑을 준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편애지각에서 그로홈 아동과 일반가정 아동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산출되지 않은 것은 그로홈 아동들도 어머니의 사랑을 형제자매간에 차별없이 받고 있다는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그로홈이나 일반가정의 아동 모두 어머니가 형제자매 중 누구를 편애하지 않고 똑같이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연구대상이 초등학생으로서 이 시기가 어머니의 사랑을 찾기보다는 또래관계에 더 집중하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추후연구를 통해 심층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셋째, 그로홈 아동과 일반가정 아동들의 사회적 적응에서는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그로홈 아동들의 경우 심리사회적 적응

에 있어서 자아존중감, 친구지지, 교사지지, 사회활동만족도가 높을수록 그로홈에의 적응이 더 용이하고, 긍정적인 사회적 적응을 한다는 결과들(김성경, 2003; 이미혜, 2002; 이용교, 2000)과 일맥상통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시설의 규모가 작을수록, 즉 가족적인 유대감을 가질수록 아동과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력이 더 높게 나타났다는 이삼미(1999)의 연구결과, 시설의 심리적 환경이 높은 시설일수록 시설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이 더 용이하였다는 유안진, 민하영, 권기남(2001)의 연구결과, 소규모 시설의 아동이 보다 성취적, 개방적, 친애적, 자율적, 상호친밀하고 응집력있는 성향을 나타냈다는 이태수 등(1997)의 연구결과와도 일관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그로홈의 아동도 시설에 적응만 잘하면 일반가정의 아동들처럼 큰 어려움 없이 긍정적인 사회적 적응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해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추후연구를 통해 보다 심층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그로홈 아동과 일반가정 아동들의 어머니 양육행동과 형제자매관계, 사회적 적응간의 상호상관에 있어서는 서로 다른 양상을 나타내었다. 어머니의 양육행동에서는 합리적 지도와 적극적인 참여에서 그로홈과 일반가정 아동 간에 상반되는 결과가 산출되었다. 즉 그로홈의 경우, 어머니가 더 합리적으로 지도할수록 형제자매들보다 나를 어머니가 더 편애한다고 생각하는 반면, 일반가정 아동은 나보다 형제자매를 더 편애한다고 지각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가정의 아동들이 어머니와 더 많은 상호작용을 하게 되면서 어머니의 애정에 대한 시기심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추후연구를 통해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그로홈의 어머니가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수록 그로홈 아동은 형제자매간에 더 경쟁을 많이 했으나, 일반가정 아동은 그렇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이 상대적으로 일반가정의 아동에 비해 적은 그로홈 아동들이 조금이라도 어머니의 관심을 끌기 위해 나타내는 행동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사회성숙도에 의한 사회적 적응과 관련해서는 일반가정 아동의 어머니가 권위주의적 통제와 과보호를 더 많이 할수록 그 아동은 사회적 적응이 더 어려웠다. 그로홈 아동의 경우에는 어머니 양육행동과 사회적 적응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일반가정에 있어서 부모가 익애적이고 권위주의적일수록 아동은 충동적이고 공격적이며, 배타적이라는 연구결과들(송명자, 1997:437)과도 일관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두 집단 모두 형제자매관계에서 부모들에 대한 편애지각은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런 결과는 부모 편애에 대한 연구결과들(Dunn & Munn, 1985; Zervas & Sherman, 1994)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아동은 부모가 자신의 형제자매들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사실 유무에 관계없이 부모가 가장 좋아하는 자식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아동은 부모의 편애에 대해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결과들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이상의 연구결과와 논의를 통해 그룹홈 아동도 적절한 물리적, 정서적 환경이 제공된다면 사회적 적응이 용이하고, 비록 비혈연이기는 하지만 어머니와 형제자매간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것을 부분적으로 나타내주었다. 그리하여 앞으로 보호를 받아야만 하는 아동들에게 아동복지의 현실적인 수준에서 가정과 같은 분위기를 제공해줄 수 있는 그룹홈이 아동들의 전인적인 발달을 위해 더 많이 설치 운영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해준다. 또한 어머니 양육행동에서 일반가정에 비해 그룹홈 어머니들이 권위적인 통제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그룹홈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사전에 바람직한 어머니 양육행동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해준다.

본 연구는 특정 그룹홈의 아동들과 그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연구가 실시되었기 때문에 전국의 그룹홈 아동들에 대한 결과로 일반화하기에는 다소의 무리가 있다. 따라서 추후연구를 통해 전국에 있는 다양한 수준의 그룹홈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들의 제 발달 측면과 인간관계 등을 중심으로 살펴볼 수 있는 연구가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감사의 글

본 논문을 위해 수고한 호서대 아동학전공 곽은영, 노그림, 목세은, 박혜선, 임진선에게 감사한다.

주제어 : 그룹홈, 일반가정, 어머니 양육행동, 형제관계, 사회적 적응

참고 문헌

강기정, 정은미(2003). 그룹홈 아동을 위한 자기성장 집단상담 프로그램 효과 연구. 2003년 대한가정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 공인숙(1989). 부모의 온정 및 통제와 아동의 역량에 대한 자기 지각.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지신(1996). 어머니의 전통-근대 가치관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사회적 행동. 이화여자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세은, 이순형(2002). 시설보호 아동과 일반아동의 사회적 기술, 정서조망 능력의 비교. *아동학회지*, 23(2), 107-120.
- 김성경(2003). 그룹홈 청소년의 일상생활 스트레스가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연구. *청소년학연구*, 10(1), 117-137.
- 김성태(2002). 아동 그룹홈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사례연구. 동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노혜련(1998). 요보호 아동 그룹홈의 이론과 과제. 98 사회복지 그룹홈 세미나 자료집.
- 보건복지부(2003). 아동복지시설일람표. 보건복지부.
- 송명자(1997). 발달심리학. 서울: 학지사.
- 송현정(1998). 부부관계 및 부모-자녀관계가 장애아 형제 관계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성미영, 이순형, 이강이(2001). 시설아동과 일반아동의 초기 학교적응 비교. *대한가정학회지*, 39(1), 53-64.
- 유안진, 민하영, 권기남(2001). 시설 아동의 자아정체감과 심리·사회적 적응: 학령기 아동과 청소년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9(3), 135-149.
- 유안진, 한유진, 최나야(2002). 시설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사회적지지 지각과 공격성간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0(3), 67-82.
- 이미혜(2001). 시설보호형태에 따른 보호청소년의 자아개념 비교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삼미(1999). 시설규모에 따른 시설아동의 자립성과 심리사회적 적응력 비교연구. 계명대학교 여성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숙(1991). 어머니 양육행동 척도 타당화를 위한 일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9(1), 189-201.
- 이순형, 이혜승(2002). 초·중·고교 교사가 지각한 시설 아동과 일반아동의 사회심리적 적응차이. *아동학회지*, 23(4), 119-136.
- 이용교(2000). 아동·청소년 그룹홈의 의의와 역할. 아동·청소년 그룹홈 활성화를 위한 공청회 자료.
- 이태수(2000). 아동·청소년 그룹홈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 아동·청소년 그룹홈 활성화를 위한 공청회 자료.
- 이태수·함철호·이용교. (1997). 소규모 아동복지시설

- 연구, 인간과 복지.
- 이현정, 조성연(2002). 형제·자매관계에 따른 유아의 사회적 능력. *아동학회지*, 23(3), 139-148.
- 최수영(2002). 아동·청소년 그룹홈 프로그램 현황 및 개발에 관한 연구.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정미(2002). 어머니의 성인기 애착과 애정적 양육행동이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0(4), 125-138.
- 한국인간발달학회 편(1997). 유아의 심리.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 황주영(2000). 아동이 지각한 중요 타인의 기대와 자아개념 및 사회성숙도와의 관계. 진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Blesky, J.(1984). The determinents of parenting: A process model. *Child Development*, 55, 83-96.
- Cohn, D. A.(1990). Child-mother attachment of six-year-olds and social competence at school. *Child Development*, 61, 152-162.
- Dekovic, M. & Janssens, J. M. A.(1992). Parent's child-rearing style and child's sociometric status. *Developmental Psychology*, 28(5), 925-932.
- Dunn, J. & Munn, P.(1985). Becoming a family member: Family conflict and the development of social understanding. *Child Development*, 56, 480-492.
- Hurlock, E. B.(1978). *Child Development*(6th ed). New York : Mcgraw-Hill.
- Jaffe, M. L.(2000). 부모교육(공인숙, 권영옥, 김영주, 문무경, 이강이, 이경화, 이완정, 한미현 공역). 서울: 창지사.
- Lerman, P.(1984) *Deinstitutionalization and the welfare state*. New Brunswick: Rutgers University Press.
- Schaefer, E. S.(1965). Children's Report of Parental Behavior. *Child Development*, 37, 413-423.
- Stocker, C. & Dunn, J.(1990). Sibling relationships in childhood: Links with friendships and peer relationships. *British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8, 227-244.
- Zervas, L. J. & Sherman, M. F.(1994).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parental favoritism and self-esteem.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55(1), 25-33.
- 인터넷 검색(www.choonie.or.kr)

(2004. 04. 19 접수; 2004. 06. 16 채택)